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4〉 깨달음

참 수행자는 自我를 약화시킨다



오늘은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며 깨달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깨달음마저 욕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을 인증하고 자격증을 주는 명상 수련회도 생겨났습니다. 한 달쯤 되는 비교적 긴 기간의 수련회를 마칠 무렵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예류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자격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은 처음 참가했을 때는 불환자의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년 후 두 번째로 참가했을 때는 예류자의 자격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주최 측의 실수로 이 년 후에 두 단계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명상 수련회는 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깨달았다는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영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수행과 다른 사람의 수행을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는 쉽게 자만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만심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어떤 인도 구루는 자신이 완전히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착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리한 핑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믿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다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 지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정이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선정이나 깨달음이 그들이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정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그들 자아의 깊은 부분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깨달음이 아닌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라한이 된 것은 출가한 지 사 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태국 북동부에 있는 한적한 사원에서 삼 개월의 우기 안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행대에서 걷기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은 고요했고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강렬한 깨우침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이해되었고 엄청난 환희와 동시에 깊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무아의 체험이었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수행했지만 조금도 졸리지 않고 마음이 완벽하게 명료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탁발을 나갔습니다. 저의 발우에 음식을 보시하는 신도들을 보며 그들에게 한없는 자애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로운 아라한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다니 얼마나 커다란 복을 짓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음을 얻던 날, 공양간에는 음식을 담은 통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한 통에는 항상 먹던 생선 젓갈이 담겨 있었지만 다른 통에는 제대로 요리된 돼지고기 카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 눈치를 챘습니다. 천신들이 저의 깨달음을 축복하기 위해 공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당시 그 사원에는 스님이 별로 없어서 저보다 법랍이 높은 스님은 그 사원의 주지 스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생선 젓갈은 조금도 손대지 않고 돼지고기 카레를 듬뿍, 아무도 그

깨달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에 대한 집착이 원인
깨달았다고 떠벌리기보다는
'소거'됐다는 표현이 정확해

만치 먹을 수 없을 만큼 듬뿍, 자신의 발우에 담았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양이 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은 돼지고기 카레가 든 통을 들더니 돼지고기 카레를 모두 생선 젓갈 통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국자로 휘휘 저으면서 '이것들은 다 마찬가지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두 가지 음식이 다 마찬가지라면 왜 자기 발우에는 돼지고기 카레만 담았지? 이 위선자! 욕심쟁이! 돼지! 내가 아라한이 되어서 천신들이 공양한 좋은 음식을 모조리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문득 아라한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고 화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괴로움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 해의 우기 안거는 무척이나 괴로운 우기 안거였습니다.

깨달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는 이처럼 쉽습니다. 강렬한 깨우침이 일어나고 다섯 장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후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그 밖의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깨우침이 일어난 경우에도 어떤 장애는 사라지고 어떤 장애는 약화되지만 또 어떤 장애는 전혀 손상 없이 건재합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류자입니다. 예류자 단계에서 유신견(有身見)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도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온 중의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를 벗어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아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은퇴 후 영원히 행복하게 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후 영원히 행복하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일부는 반열반 후에 어떤 식으로든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열반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깨달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멸론이고 정신적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멸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다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인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는 비교적 쉽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아라는 관념을 가지고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은 있으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없습니다. 열반은 있으나 열반을 얻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놓아버리고 내맡기십시오. 자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자애로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은 장애라는 해충을 박멸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번뇌를 박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괴하기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을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달음의 첫 단계인 예류자가 되면 삶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류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말하고 싶어합니까? 자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남아 있다면 아직 예류자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던 스리랑카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난다망갈라' 라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학승으로 유명했던 뻬야닷시 스님이나 나라다 스님,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구나라타나 스님 등과 모두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스님은 상당히 반항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호주에 있는 저희 사원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 이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자신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소거(消去)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Are you enlightened?"

"No, I am highly eliminated."

깨달았다거나 해탈했다고 말하기보다 소거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더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소거됩니다. 누군가 수행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으면 점점 더 소거되어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여정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